

“소중한 한국사진의 역사”
Precious history of Korean photography
1945-2025

대한사진예술가협회 80주년 기념전 빛, 시간을 품다

존경하는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원 여러분,

1945년 해방의 기쁨과 함께 시작된 저희 협회가 어느덧 80년이라는 뜻깊은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묵묵히 사진 예술의 외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과,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온 모든 회원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사진 예술의 발전과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사진인의 열정과 땀, 그리고 끊임없는 탐구의 결과입니다. 저희 협회는 지난 80년간 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시대의 변화를 사진으로 담아내고, 예술로서의 사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80주년 기념전은 그 오랜 여정 속에서 피어난 소중한 결실들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입니다. 회원들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넘어, 작가 개개인의 깊이 있는 시선과 철학, 그리고 시대를 향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진예술가협회는 앞으로도 사진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세대의 사진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사진이 우리 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장 **김 평 기**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80th Anniversary Exhibition: Light, Embracing Time

Dear Esteemed Members of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It is with great honor that our association, which began with the joy of liberation in 1945, now marks 80 years of profound history. I extend my deepest respect and gratitude to all the senior members who have steadfastly walked the sole path of photo art through turbulent times, and to all members who have inherited that noble spirit and continuously pursued new endeavors.

The span of 80 years is not merely a number. It is the result of the passion, dedication, and endless exploration of countless photographers who have breathed alongside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and elevation of the status of photographic art. Over the past 80 years, our association has left behind numerous records, capturing the changes of the times through photography, and exploring the direction that photography should take as an art form.

This 80th Anniversary Exhibition is an occasion to gather the precious fruits that have blossomed throughout that long journey. The works of our members go beyond simply beautiful images; they encapsulate each artist's profound perspective, philosophy, and sincere reflection on the times.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will continue to expand the horizons of photo art, lay the foundation for new generations of photographers to fully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and do its utmost to ensure that photography exerts an even more positive influence on our society.

Thank you.

Kim Pyeong-gi President,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원 여러분!

한국 사진예술의 산 역사인 대한사진예술가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자축하게 되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협회의 역사는 1945년 9월, 광복의 감격 속에 백양사우회와 경성아마추어카메라구락부의 중견 회원들이 결집하여 조선사진예술연구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해선, 현일영, 박영진, 박필호, 김정래, 오인창, 이규완, 이태응 등 창립회원들의 숭고한 예술혼은 오늘날 협회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협회는 전국 사진가들의 구심점이 되어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며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사진단체로 성장하였고, 1947년에는 대한사진예술연구회로 개명하며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잠시 시련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1961년 정부 명령으로 모든 예술단체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예술가들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962년 한국사진협회가 예총 산하에 창립되며 그 맥을 이어갔으며, 1964년 문화단체 활동 해금령이 내려지자 백오 이해선 선생을 중심으로 김조현, 성두경, 안준천 선생 등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대한사진예술가협회를 재건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967년 10월, 연구회원으로 협회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58년간 동행해 왔습니다. 매월 연구월례회에 작품을 제출하며 이해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1968년 1월에는 공보부 중앙공보관의 종합미술전시회 협회 부스에 첫 출품을 허락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후 제17회 대한사협전부터 2025년 제71회 대한사협전까지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제가 겪은 58년의 변화도 놀라울 만큼 격동적이었지만, 대한사협 80년의 역사는 끊임없는 시대와 예술사조의 변화를 포용하며 새로운 사진 문화를 창출해 온 위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 협회의 영광은 그동안 협회를 굳건히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들, 그리고 사진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을 보여주신 모든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입니다.

대한사협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 특히 백오 이해선, 김조현, 성두경, 안준천, 이순흥, 김석현, 김용필, 이완섭, 이정훈, 최진연 등 고인이 되신 모든 선구자들을 추모하며, 80년의 역사를 밝혀온 대한사협의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돌립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협회의 미래이며, 한국 사진예술을 빛낼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 8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자축하며, 이 기념비적인 순간이 다가올 100년의 역사를 열어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12.

대한사진예술가협회 고문 **안 장 현**

Commemorative Address for the 80th Anniversary of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Esteemed Members of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

We are deeply moved and privileged to celebrate a momentous occasion: the 80th Anniversary of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a living history of Korean photographic art. We are filled with profound emotion to commemorate this glorious moment together.

The history of our Association began in September 1945, amidst the elation of liberation. Senior members of the Baekyangsawoo Association and the Gyeongseong Camera Club united to inaugurate the Joseon Photographic Art Research Society. The sublime artistic spirit of the founding members—including Lee Hae-seon, Hyun Il-yeong, Park Young-jin, Park Pil-ho, Kim Jeong-rae, Oh In-chang, Lee Gyu-wan, and Lee Tae-cung—has become the firm root of our Association today. Subsequently, the Association grew to become a genuine nationwide photographic organization, establishing chapters across the country as a central rallying point for photographers throughout the nation. In 1947, it was renamed the Korean Photographic Art Research Society, dedicating itself to the advancement of photographic art.

The Association endured a period of hardship. In 1961, the government dissolved all art organizations, yet the passion of the artists remained unextinguished. The torch was passed on in 1962 when the Photographic Society of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e Organizations (Ye-Chong). Following the lifting of the ban on cultural activities in 1964, luminaries such as Baek-Oh Lee Hae-seon, along with Kim Jo-hyeon, Seong Du-gyeong, and Ahn Jun-cheon, once again joined forces to reestablish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the legacy of which continues to this day. We express our deepest respect for their noble sacrifice and relentless efforts.

My 58-Year Journey with the PAAK

On a personal note, I first connected with the Association as a Research Member in October 1967, and have since walked alongside it for 58 years. I submitted my work at the monthly research meetings and was mentored by Lee Hae-seon. In January 1968, I was granted the honor of making my first official submission at the PAAK booth during the Comprehensive Art Exhibition hosted by the Central Public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Public Information.

Since then, I have consistently participated, from the 17th PAAK Exhibition all the way to the 71st PAAK Exhibition in 2025. While the 58 years I have personally witnessed were tumultuous and transformative, the 80-year history of the PAAK is an incredible testament to its ability to embrace the ceaseless changes in eras and artistic trends while creating a new photographic culture. Gratitude for the Dedication, Hope for a New Future

The glory of our Association today is owed to the dedicated love and unwavering passion for photography shown by the successive Presidents, executives, and all members who have steadfastly led the PAAK.

We commemorate all the pioneers who have passed away—including Baek-Oh Lee Hae-seon, Kim Jo-hyeon, Seong Du-gyeong, Ahn Jun-cheon, Lee Sun-heung, Kim Seok-hyeon, Kim Yong-pil, Lee Wan-seop, Lee Jeong-hoon, and Choi Jin-yeon—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PAAK. We extend our warmest and deepest appreciation to all members of the PAAK who have illuminated these 80 years of history.

Every single member actively working across the nation today is the future of our Association and a precious asset that will glorify Korean photographic art.

I sincerely congratulate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once again on its 80th Anniversary, and I fervently wish that this monumental occasion serves as a firm stepping stone to opening up the next 100 years of our history!

December 2025 Ahn Jang-heon Advisor,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빛이 도착한다. 시간이 뒤이어 드러난다.

**사진은 빛과 시간이 스치며 남기는 진동에서 시작하며,
지나간 것을 오지 않은 세계 속에 보존하는 주문이다.**

2025년 대한사진예술가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했다. 80년 동안 한국은 해방과 전쟁, 가파른 경제성장을 겪으며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격동의 현대사를 함께 하며 대한사진예술가협회는 긴 시간 동안 사진으로 한국의 변화를 기록하며 호흡해 왔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태동한 대한사진예술가협회는 빛을 매개로 시간과 인간의 삶을 기록하면서 예술의 지평을 넓혀 왔다. 이번 전시 <빛, 시간을 품다>라는 80년의 여정을 다시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다. 사진은 ‘빛’의 예술이며, 동시에 ‘시간’의 언어다. 필름으로 포착된 이미지가 종이 위에 은입자로 새겨지고, 디지털 센서 위에 떨어지는 한 줄기 광선은 사라질 순간을 영원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개인의 기억을 공동체의 역사로 확장하고 각자가 품은 생각을 이미지로 드러내는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빛, 시간을 품다>는 이해선 사진상을 받은 작업들과 함께 현재 작업하고 있는 회원들의 사진을 한데 모아 프레임 안에 담긴 빛과 시간이 구축한 한국 사회의 얼굴과 우리에게 남은 울림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여명(黎明): 광복과 격동의 시대

여명 섹션에서는 해방을 맞은 거리의 풍경, 전쟁의 상흔, 재건을 위해 의지를 다시는 한국의 모습을 돌아본다. 이 당시 촬영된 사진들은 한국 역사의 증인이자 혼탁한 사회의 틈새를 짚어 내며 시대의 감정과 호흡을 박제시키는 사료이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에 남겨진 진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2. 성장(成長): 산업화와 민주화의 발자취

나라가 숨 가쁘게 뛰어가던 시대, 사진은 변화의 속도를 담아내는 가장 예민한 감각이었다. 공장의 굉음, 도시의 확장, 시민들의 모습과 연대, 모든 장면은 한 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각적 연대기일 것이다. 찬란하지만 눈물이 녹진하게 뻔 산업화의 현장과 강한 민주화의 투쟁이 쏠아 올린 빛을 사진가들은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이 남긴 사진은 시대의 기록이자 예술로 남았다.

3. 공명(共鳴): 현대인의 삶과 예술적 시선

빛은 역사적 사건을 지나 일상의 미세한 결을 더듬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도시의 그림자, 사람들이 만나 빚어내는 풍경과 인간미, 예술적 상상력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장면들이 교차한다. 사진을 통해 우리는 일상과 사유가 진동처럼 서로에게 번져가는 것을 목격한다. 다른 울림들이 서로를 흔들며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 사진은 대화가 되고 이미지는 질문이 된다.

4. 환영(幻影): 미지의 미래를 향한 탐색

빛은 미래를 향해 열린 문이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의 징후다. 환영 섹션은 사진이 더 이상 단순한 재현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예술적 실험의 도구임을 보여준다. 추상적 이미지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혼돈,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섞여 만들어 내는 미학, 경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시각 언어들이 공존한다.

대한사진예술가협회는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 사진예술의 성장과 확장을 함께 해 왔다.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창작의 열정, 산업화의 소음 속에서 찾아낸 일상, 빛을 매개로 찾아낸 다양한 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원들이 쫓아온 한국 사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빛으로 새기는 기록, 다채로운 시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 <빛, 시간을 품다>라는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온 수많은 이미지와 함께, 시대를 살아 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이어받아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갈 우리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공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80년을 기념하는 전시이자, 앞으로의 80년을 향한 선언이다. 그동안 프레임에 품어진 빛이 새로운 세대를 거쳐 더욱 넓은 세계로 확장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시간이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깨어나길 기원한다.

글: 레 나 (LENA)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80th Anniversary Exhibition Light, Embracing Time

Light arrives. Time is subsequently revealed. Photography begins with the vibration left as light and time pass, and it is an incantation that preserves the past within a world that has not yet come.

In 2025,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PAAK) marks its 80th anniversary. Over these eight decades, Korea has undergone immense changes, experiencing liberation, war, and rapid economic growth. By walking alongside this turbulent modern history, PAAK has consistently documented and resonated with Korea's transformation through photography for a long time. Established with the liberation in 1945, PAAK has broadened the horizon of art by recording time and human life mediated by light.

This exhibition, <Light, Embracing Time>, is an opportunity to look back at the 80-year journey and prepare for the future. Photography is the art of 'light' and, simultaneously, the language of 'time.' An image captured on film is etched onto paper with silver particles, and a single ray of light falling onto a digital sensor transforms a fleeting moment into eternity. Photograph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edium that expands individual memory into communal history and reveals the thoughts held by each person through images. <Light, Embracing Time> by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seeks to gather works that have received the Hae-sun Lee Photography Award along with photographs by current members to revisit the face of Korean society built by the light and time contained within the frame, and the resonance that remains with us.

Exhibition Sections

1. Dawn (黎明): Liberation and the Era of Turbulence

The Dawn section explores the landscapes of the streets encountering liberation, the scars of war, and the image of Korea resolving to rebuild. The photographs taken during this period are historical records that serve as witnesses to Korean history, point out the cracks in a chaotic society, and preserve the emotions and pulse of the era. They invite us to look upon the truth left behind in the time that has passed, not merely simple memories.

2. Growth (成長): Trace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the age when the nation was running breathlessly, photography was the most sensitive sense capturing the speed of change. The roar of factories, the expansion of cities, the appearance and solidarity of citizens—every scene is a visual chronicle showing the process of a society's maturation. Photographers did not turn away from the dazzling, yet tear-soaked, sites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light projected by the intens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The photographs they left behind remain as both historical records and art of the time.

3. Resonance (共鳴): Modern Life and the Artistic Gaze

Beyond historical events, light traces the subtle texture of daily life, peers into the human interior, and generates new meanings. City shadows, the scenes and humanity created by people meeting, and new spectacles generated by artistic imagination intersect. Through photography, we witness how daily life and contemplation spread to one another like vibrations. In the moment when different echoes shake each other and shine beautifully, photography becomes a dialogue, and the image becomes a question.

4. Phantasm (幻影): Exploration towards an Unknown Future

Light is a door open toward the future and a sign of time that has not yet arrived. The Phantasm section demonstrates that photography is no longer merely a tool for representation but a means for artistic experimentation that explores new possibilities. The beautiful chaos created by abstract images, the aesthetics formed by the mixture of digital and analog, and new visual languages generated at boundaries coexist.

The Photographic Artist Association of Korea has accompanied the growth and expansion of Korean photo art over the long period of 80 years. From the passion for creation that never ceased even amidst the post-war ruins, to the ordinary life discovered within the noise of industrialization, the diverse attempts found through the medium of light, and the imagination toward the future—the history of Korean photography pursued by PAAK members can be summarized as: 'Record Etched by Light, History of Diverse Persp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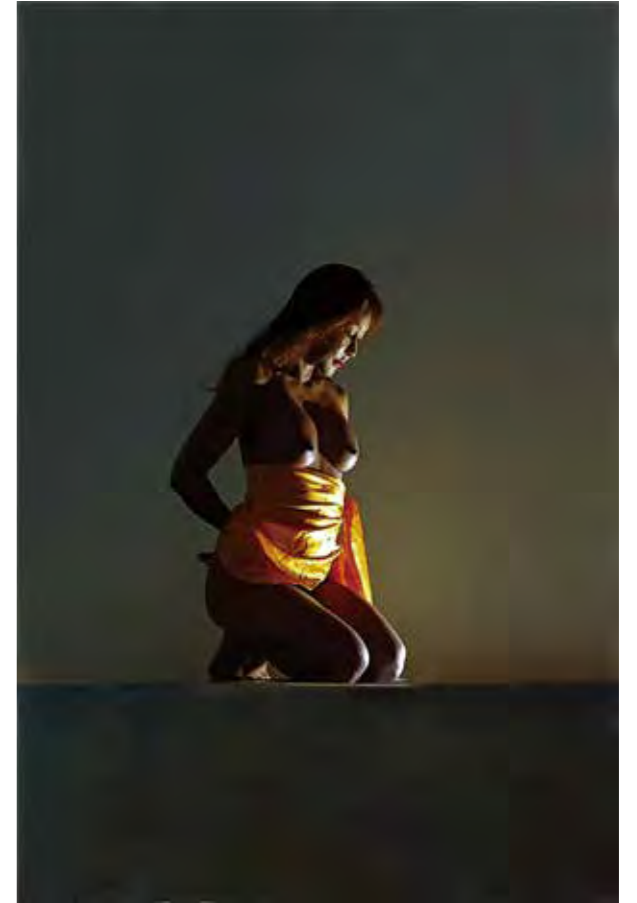
This exhibition, <Light, Embracing Time>, will be a place of resonance where we collectively look upon the countless images that have flowed along the river of time, the people who lived through the eras, and our future that will inherit their gaze to create new images. This exhibition is both a commemoration of the past 80 years and a declaration toward the next 80. We hope that the light held within the frame will expand into a wider world through new generations, and we wish for the time of all of us to be reawakened through this exhibition.

Written by: LE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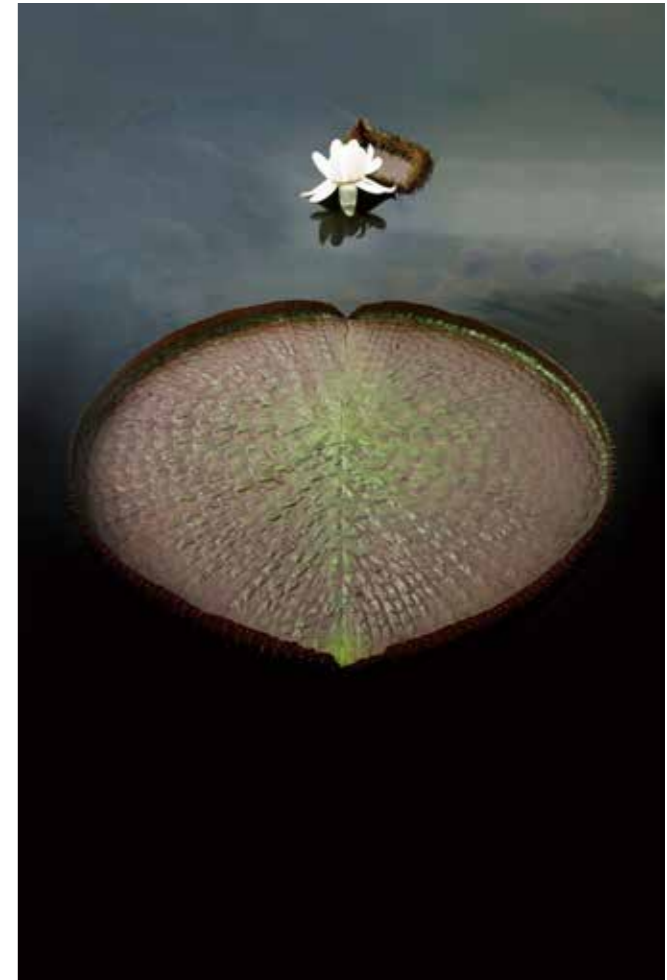
2004년 8월24일 실�크로드~돈황, 중경 권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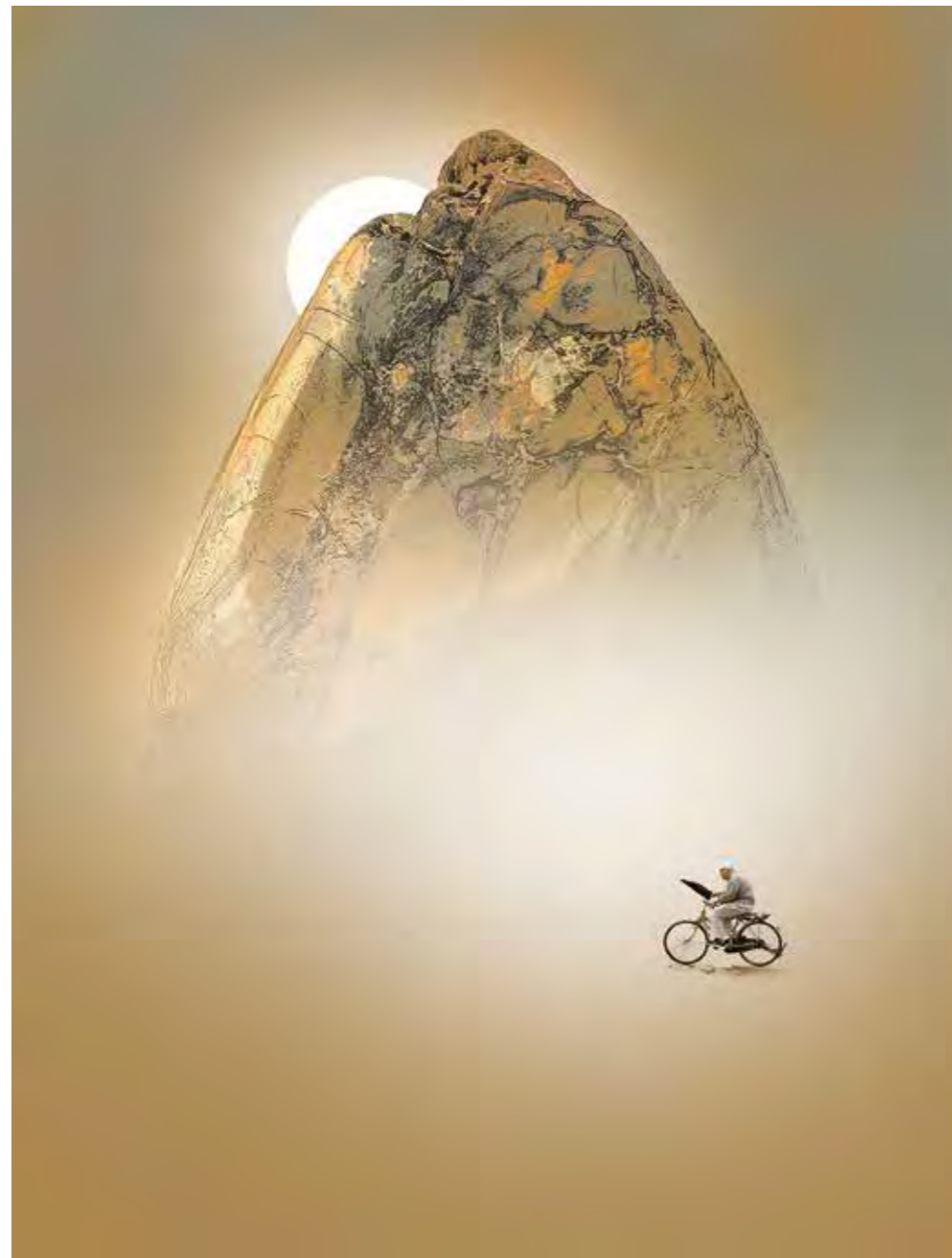


















西, 사라진 섬 아암도, 인천, 1969



東, 강남구 봉은사 근처, 서울,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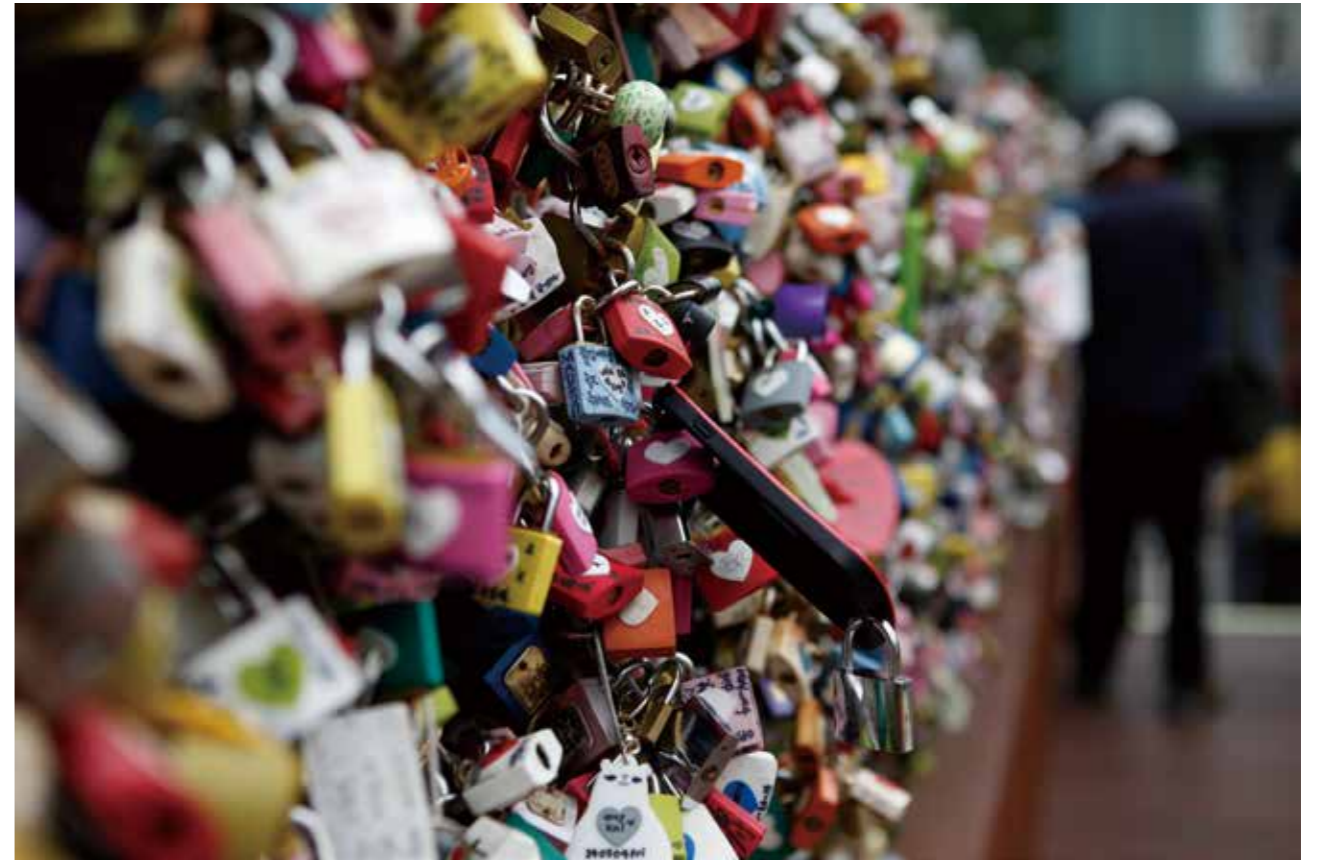


南, 남한산성,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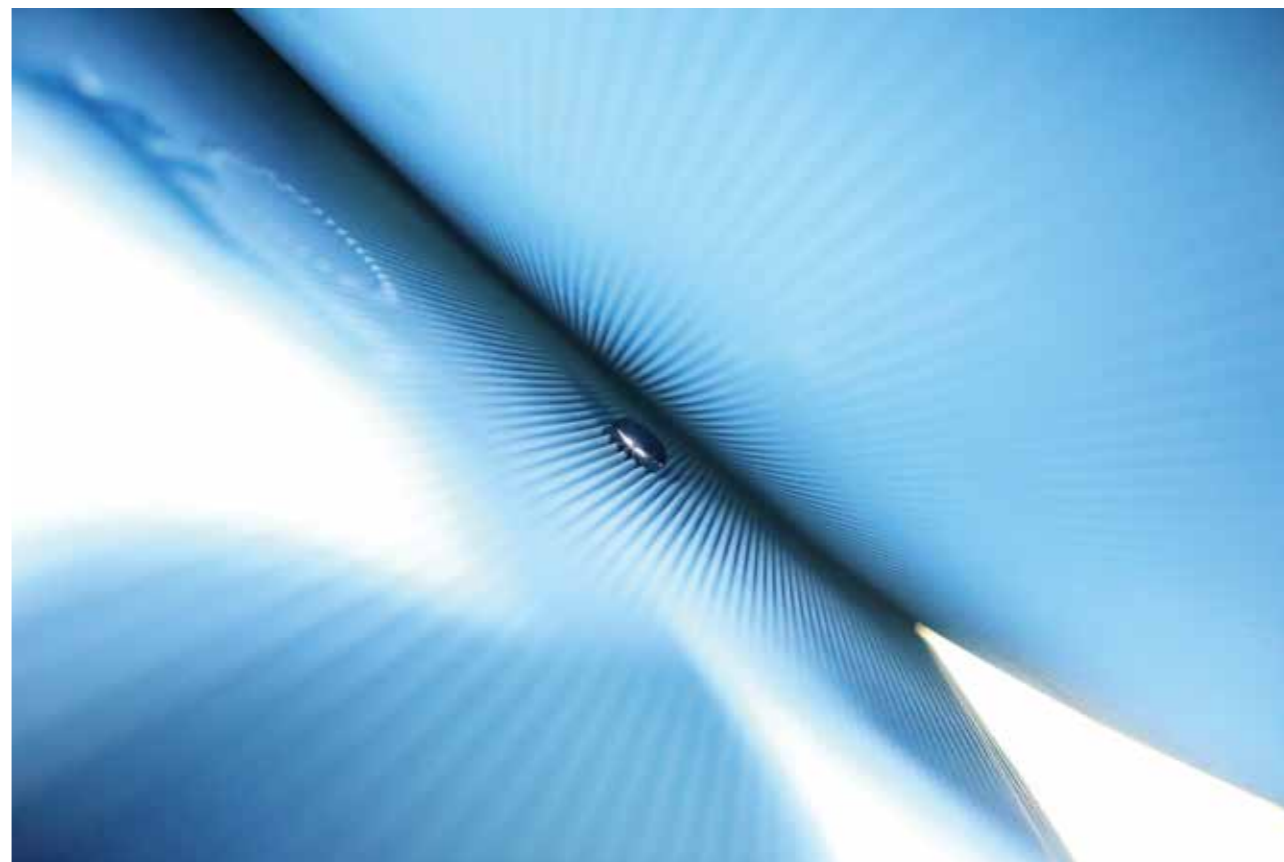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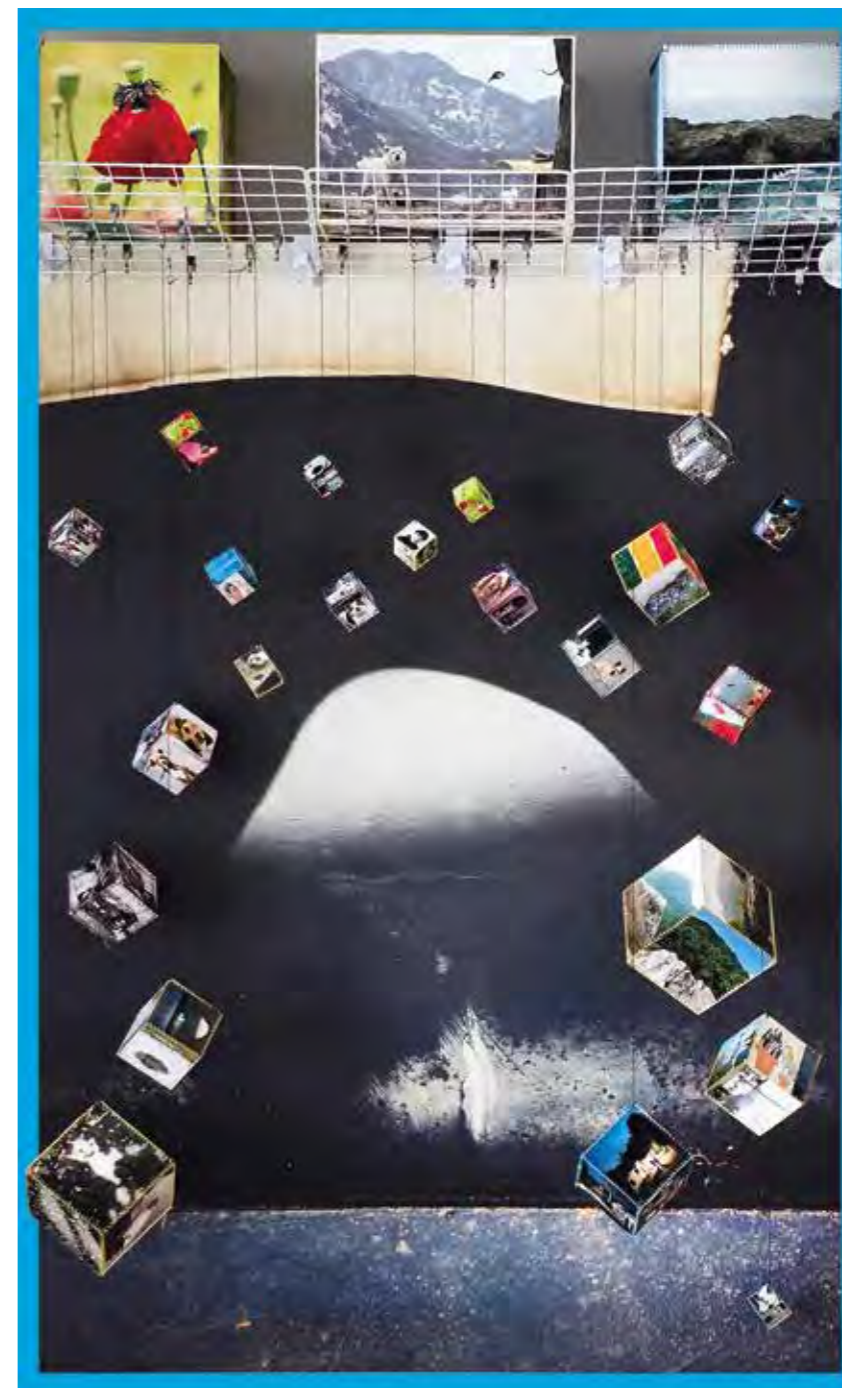
北, 강북구 번동, 서울,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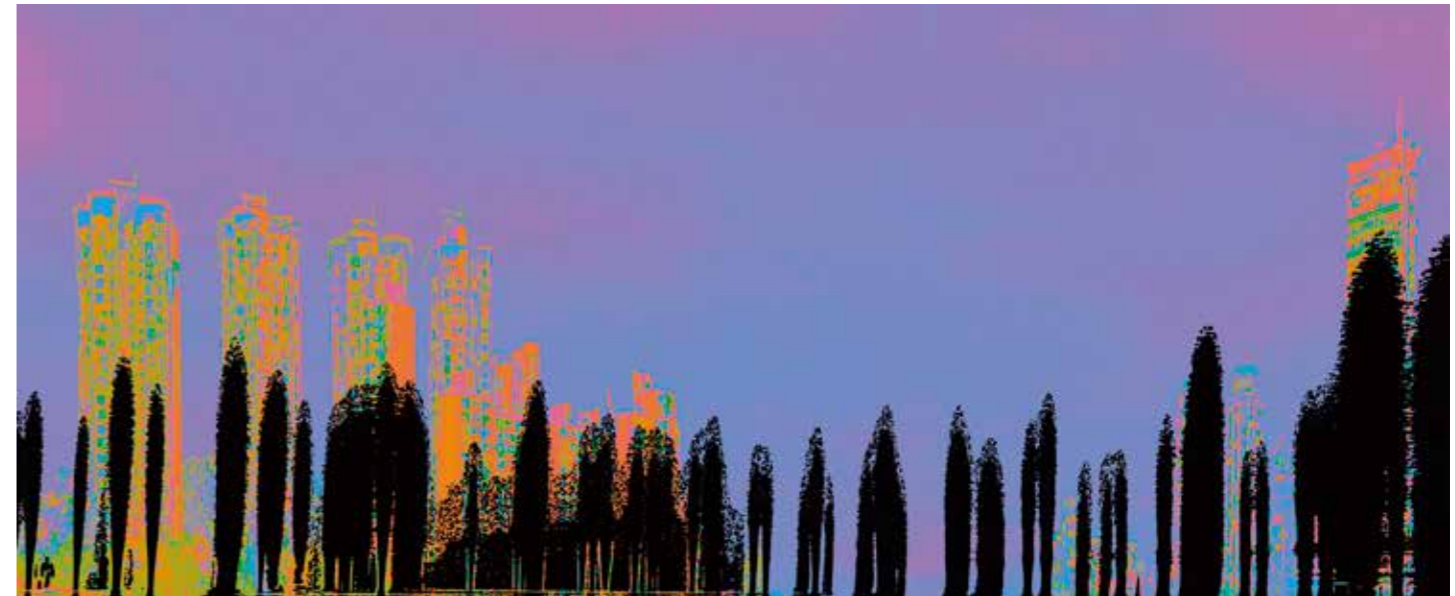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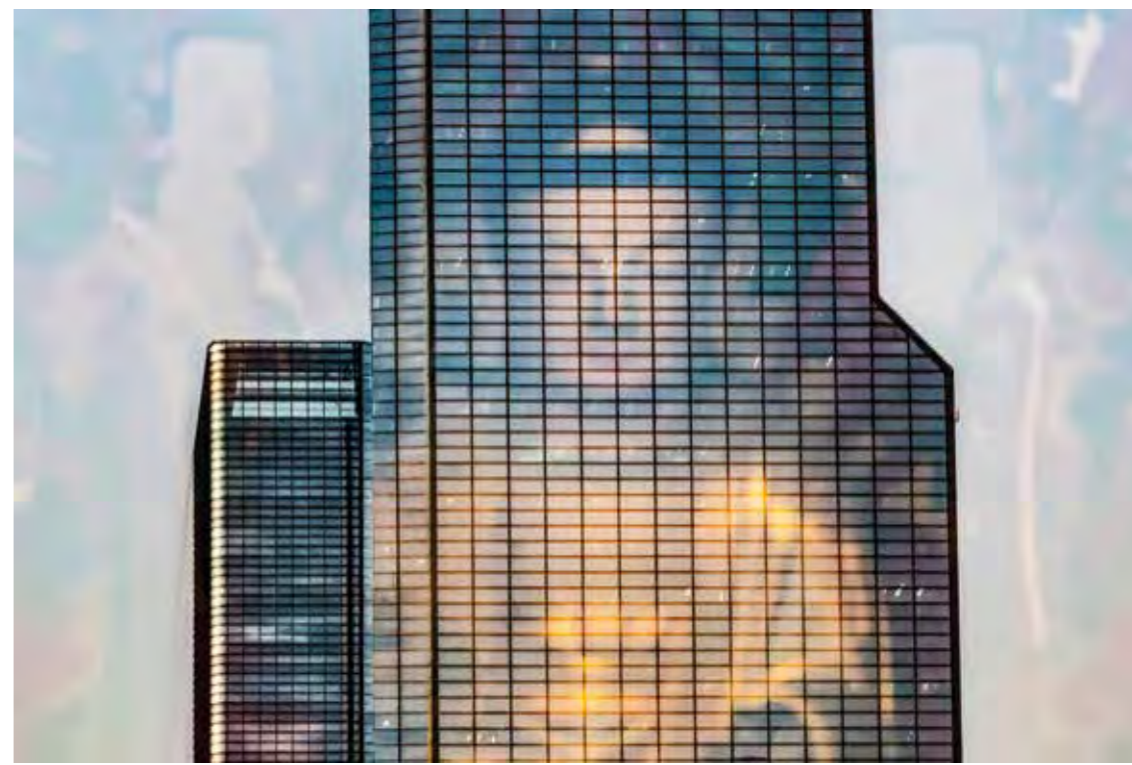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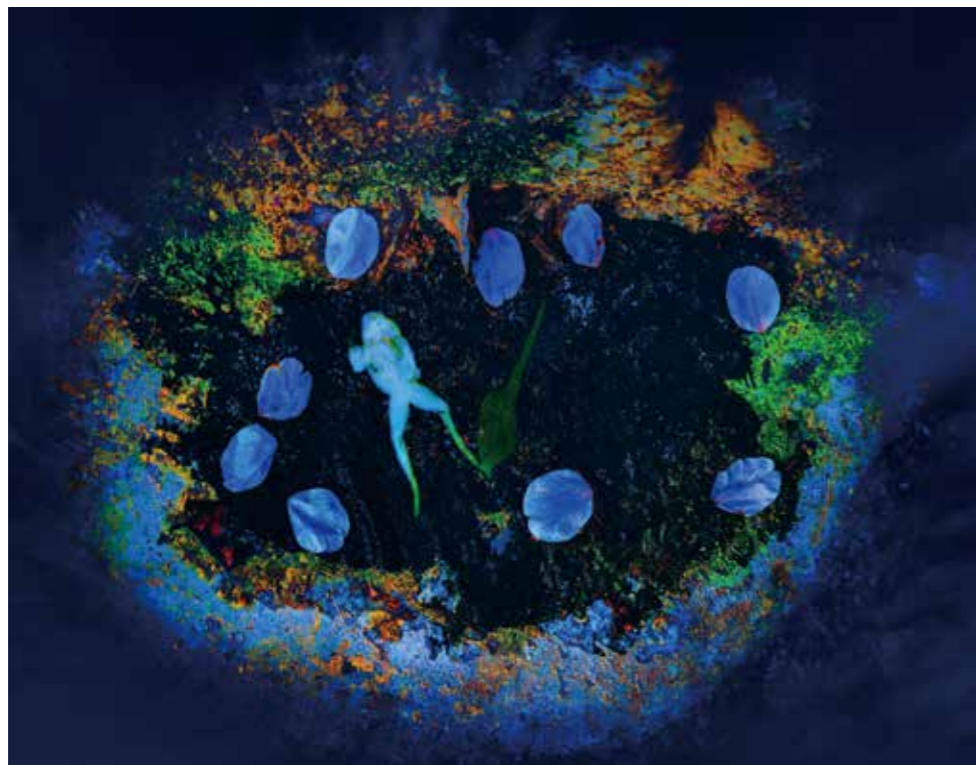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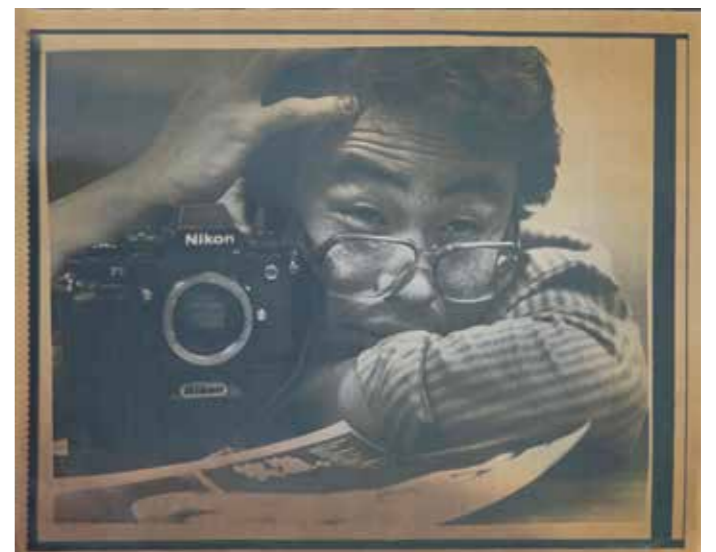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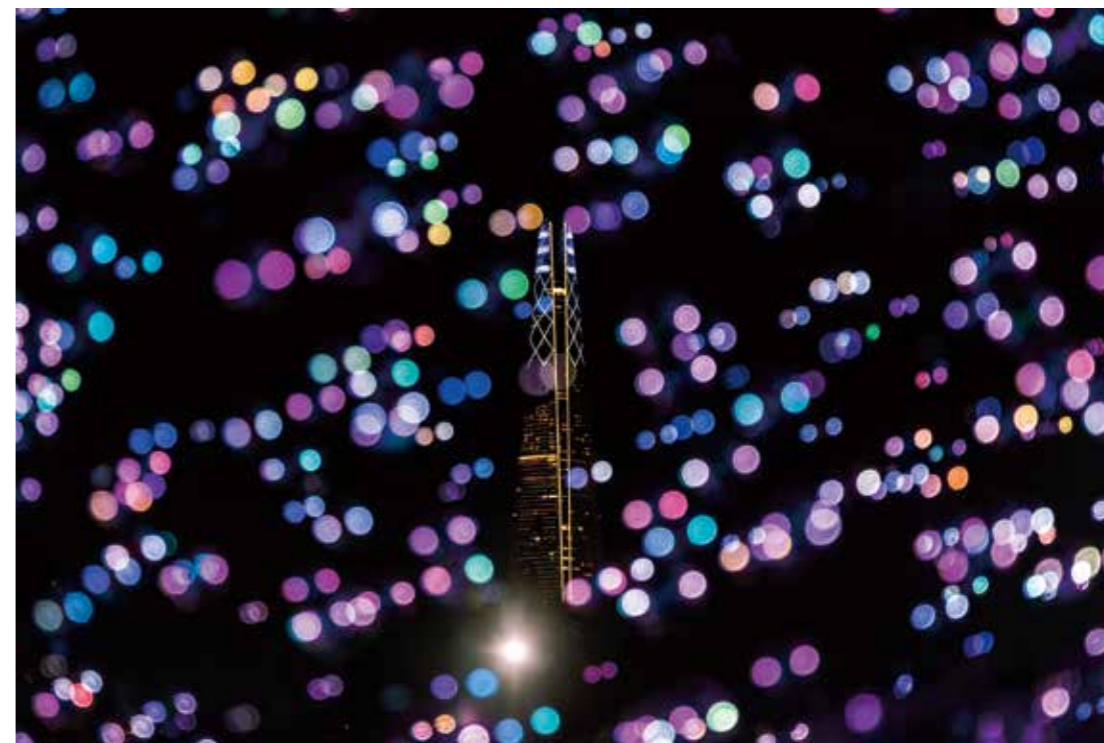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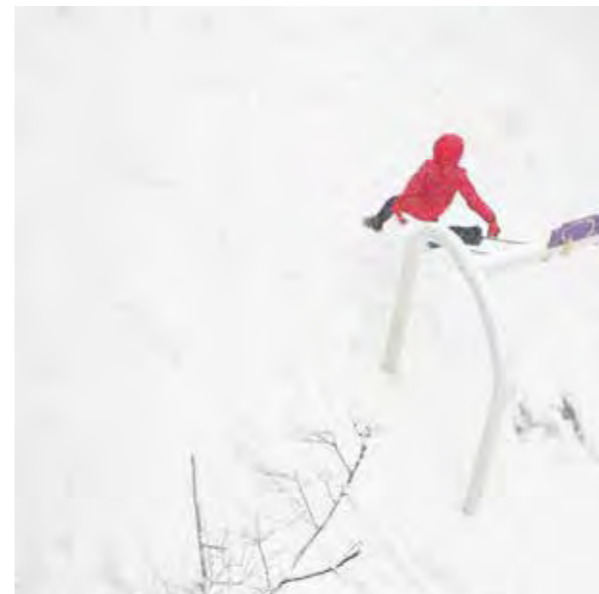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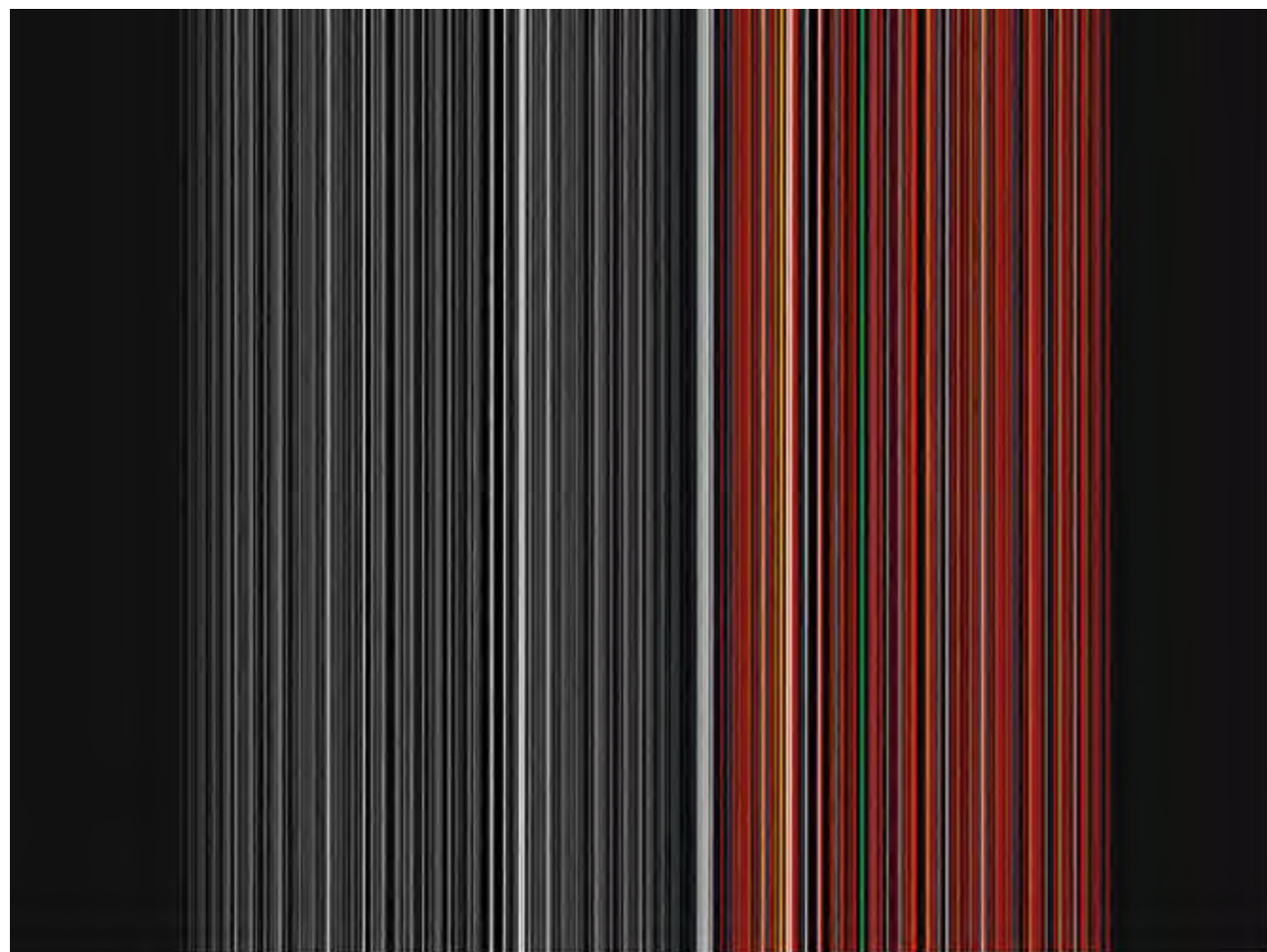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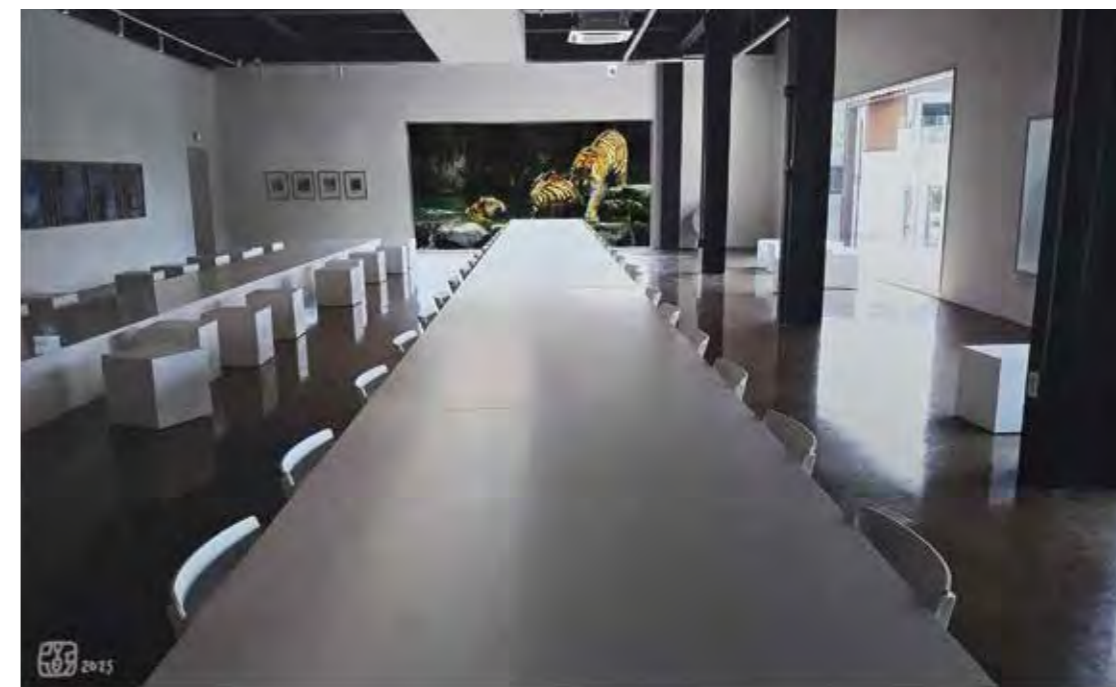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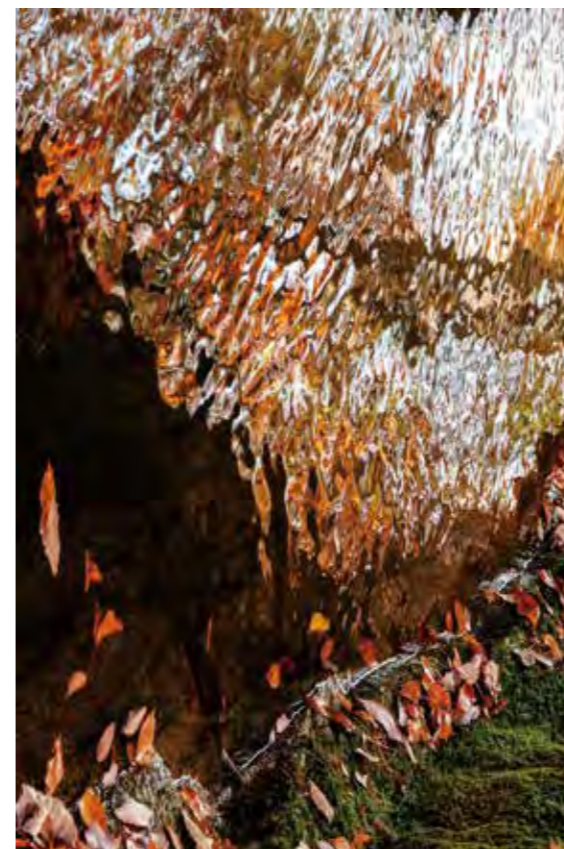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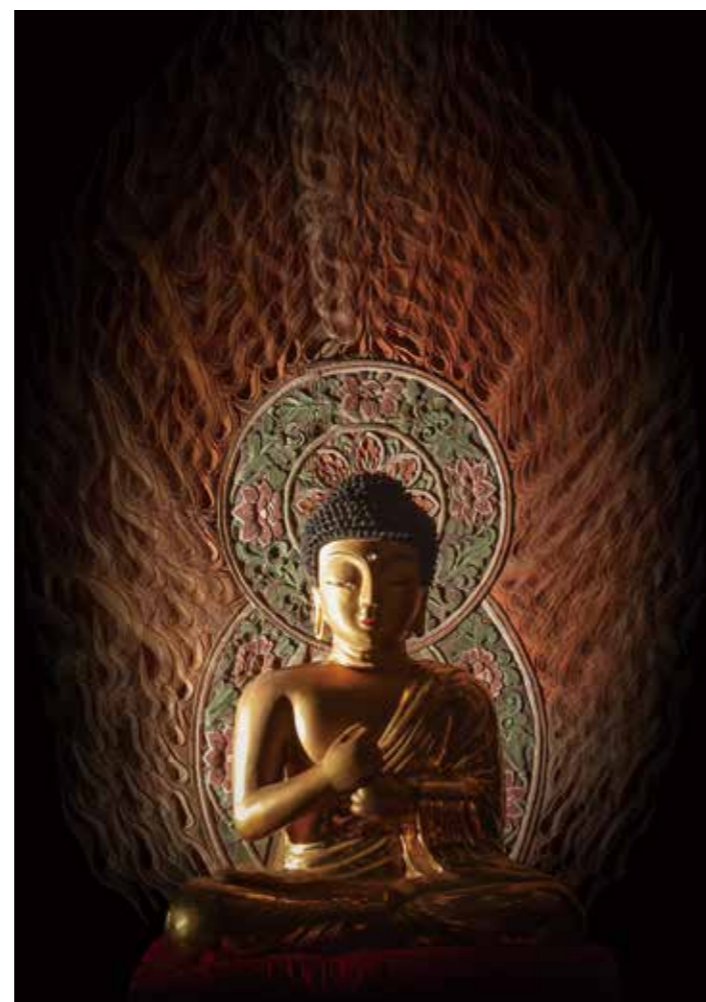














대한사협 80년

남윤 김 완 기

조국의 광복 맞아 사진예술 싹을 틔운
선구자 백오 이해선 사진인 뜻을 모아
문을 연 대한사협이 팔십 고개 넘는다.

월례회 작품 평가 후진들 일깨워서
작가를 배출해 낸 그 정신 숭고해서
추억의 오솔길에서 그리움만 애절해.

대이어 도전해온 기발한 선진작가
회원들 감동시켜 예술혼 일깨우니
기동감 서까래감이 큰 숲 이뤄 춤춘다.

고목에 꽃이 피고 가지가 뻗어나니
앞날이 울울창창 희망에 벅차올라
선각자 이해선 스승님 별이 되어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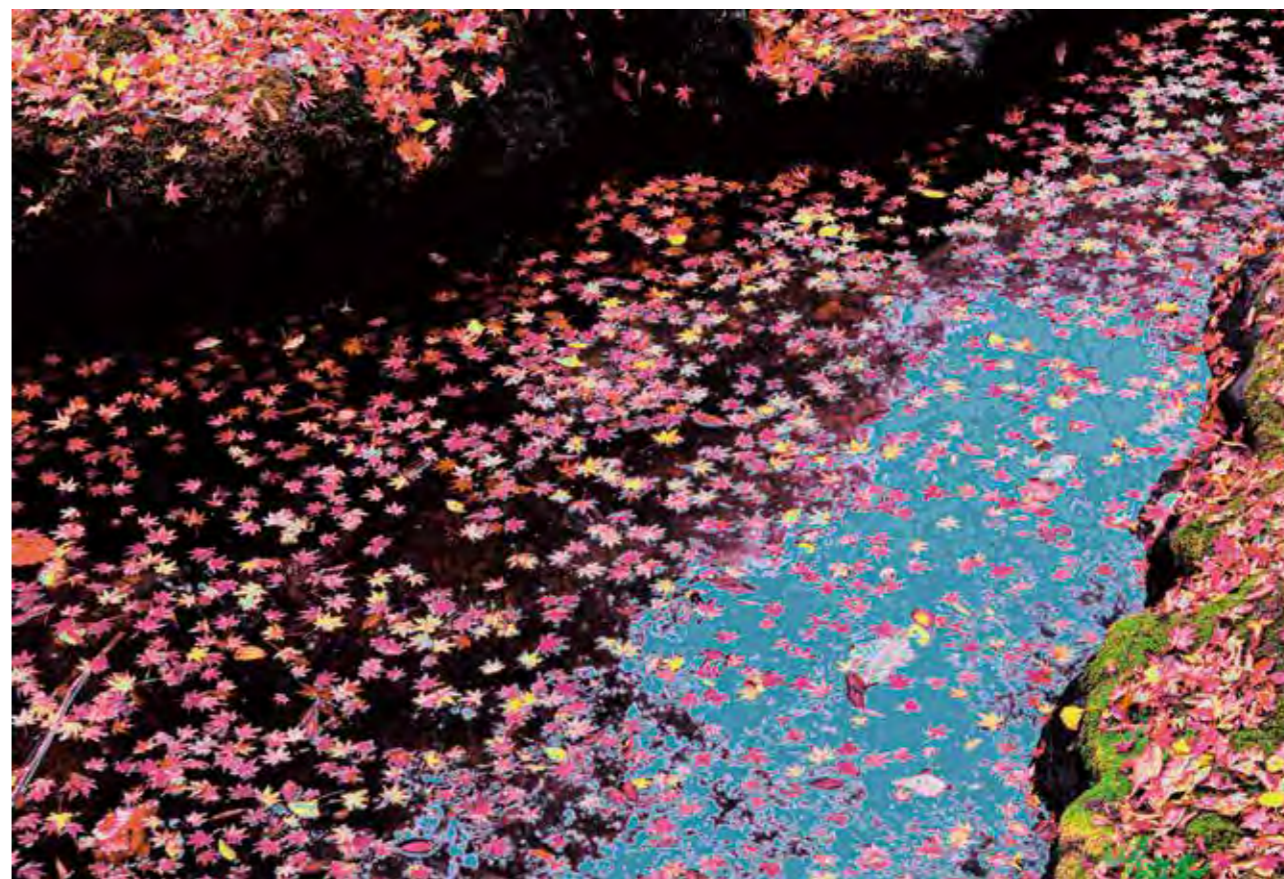


백오 이해선 사진문화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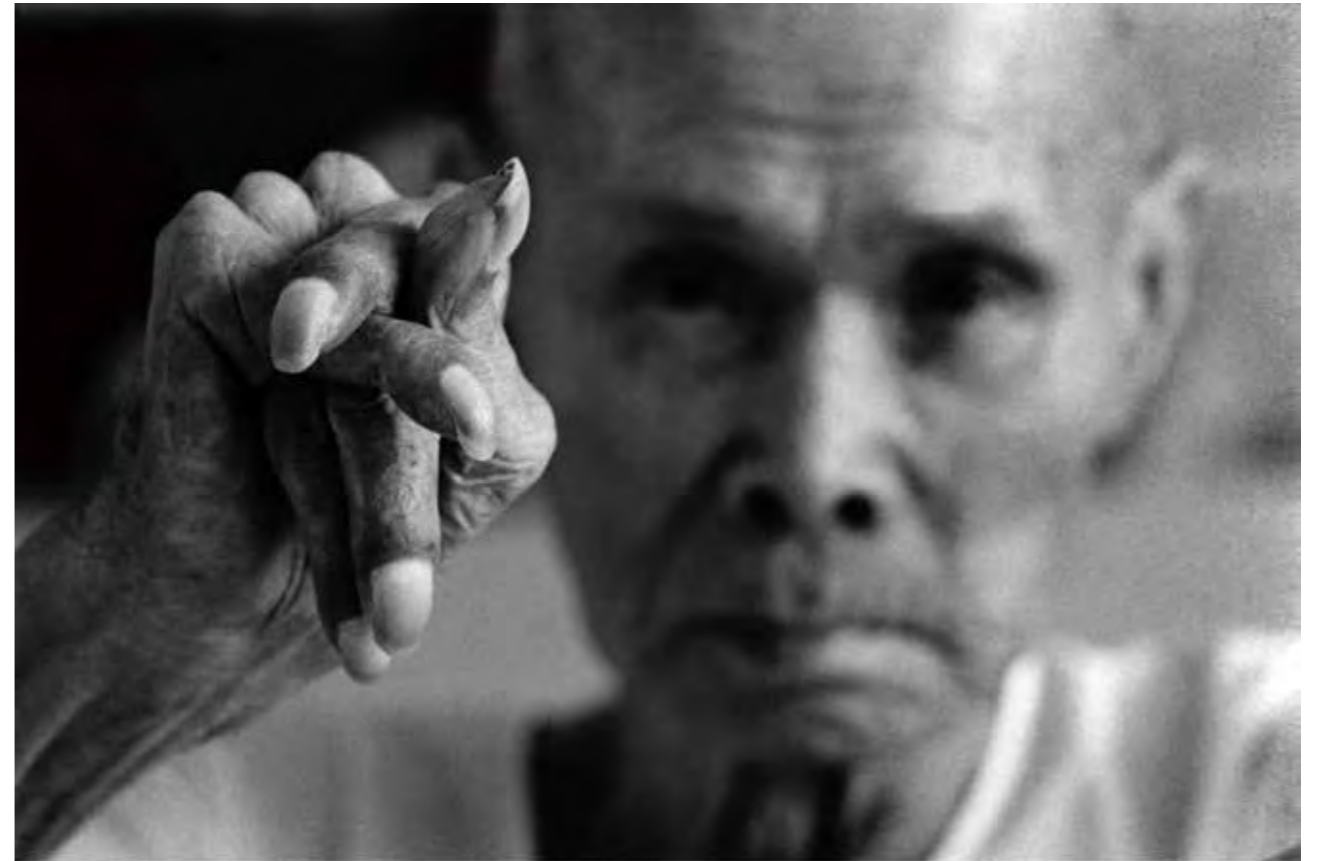
제1회 유동호 | 제2회 황규태 | 제3회 윤주영 | 제4회 최민식 | 제5회 강상규 | 제6회 이순흥
 제7회 송기엽 | 제8회 최흥만 | 제9회 김한용 | 제10회 안장현 | 제11회 조세현 | 제12회 안희탁
 제13회 마이클 캐나 | 제14회 구아바라 시세이 | 제15회 김완기 | 제16회 장진필















- 1945 · 조선사진연구회 창립 (지도위원 이해선, 초대회장 박영진)
- (9.10) · 8,15해방과 더불어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1936)와 백양사우회(1939)의 중견회원 및 기타 지방의 사진인들을 규합해 전국적인 단체로 발족함. 창립회원(이해선, 현일영, 이규완, 오인창, 박필호, 박영진 이태응 김정래 등)
- 1946 · 8,15 해방기념 한국최초의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제2대회장 이해선)
- 1947 ·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계기로 회 명칭을 대한사진예술연구회로(대한사연)로 개칭
· 제1회 대한사연회원전 개최 / 제1회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 대한사연회보 제1호, 제2호 발행
- 1948 · 제2회 대한사연회원전 개최 / 제2회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 1949 · 제3회 대한사연회원전 개최(제3대회장 이규완) / 제3회전국사진공모전 개최
- 1952 · 부산 피난지에서 부산사진예술연구회와 합동사진전 개최
- 1953 · 제4회 대한사연회원전 개최(부산국제구락부) / 공보처 후원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 창립8주년기념촬영대회 개최 / 제5회 대한사연회원전 개최
- 1954 · 제6회 대한사연회원전 개최 / 창립9주년기념촬영대회 및 작품전 개최
· 대한사연회보 제3호, 제4호 발행 / 제7회 대한사연회원전 개최
- 1955 · 대한사연회보 제5호 발행 / 제8회 대한사연회원전 개최 / 제4회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창립 10주년기념촬영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 1956 · 창립11주년기념촬영대회 및 작품전 개최 (제4대회장 김조현)
- 1957 · 회 명칭을 대한사진예술가협회로 개칭 / 제9회 대한사협전 개최 / 창립12주년기념촬영대회 및 작품전 개최
- 1958 · 제10회 대한사협전 개최 / 창립13주년기념추계촬영대회 개최
- 1959 · 제11회 대한사협전 / 창립14주년기념추계촬영대회 및 13~14회 작품전 개최
※문교부에 국전 사진부 신설을 진정
- 1960 · 제12회 대한사협전 개최(동화백화점 화랑) / 창립15주년기념촬영대회 및 작품전 개최
- 1961 · 정부시책에 따라 일시 발전적 해산
※1961년 12월 17일 한국사진작가협회(당시 한국사진협회) 창립(1961~1963 한국사협 / 고문 : 이해선, 부이사장 : 김조현)
- 1962 · 대전지회 설립
- 1963 · 대한사협출신들로 사진예술동인전 개최(중앙공보관)
- 1964 · 정기총회 개최(제5대 회장 이해선) / 문화단체 해금령에 따라 일시 해산했던 대한사협 재건 / 13회 국전에 사진부 설치
- 1965~6 · 제13~15회 대한사협전 개최 / 대한사협 수요일폐회 개최
- 1967 · 제주지회 설립 제16회 대한사협전
- 1968 · 제23차 정기총회, 제16회, 17회 대한사협전 개최및 작품집 발간
- 1969 ·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백오사진상 제정
· 제18회 대한사협전 개최 및 작품집 발간
- 1970 · 제25차 정기총회 / 제1회 백오사진상 시상(작품상 : 김석현, 공로상 : 이순흥)
- 1971~2 · 제26~27차 정기총회 개최 / 제19~20회 대한사협전 개최 / 제2~3회 백오사진상시상
※제20회국전(제1회 대한민국건축사진전람회로 개최, 1971)
- 1973~6 · 제28~30차 정기총회 개최(제6~7대 회장 안준천) / 제21~23회 대한사협전 개최(국립공보관)
제4~7회 백오사진상 시상 / 이해선사진작품전(신문회관화랑, 1974) / 제4~7회 백오사진상 시상
유자격 정회원 한국사협에 단체로 입회 / 제23회 국전(불국전 4부에 사진·건축·공예 신설(1974)
- 1977~82 · 제31~36차 정기총회 (제8~10대 회장 성두경)
· 제24~29회 대한사협전 개최 / 부산지회 설립(1978) / 제1~5회 전국회원촬영대회
· 제8~13회 백오사진상 시상 / 제주지회 폐쇄(1980) / 백오이해선사진집 출판기념회(예총화랑,

- 1981) / 제1~3회 전국대학생사진공모전(대전지회 주최, 1979~82)
※1981~1983 한국사협부이사장 : 성두경
※국전에서 민전으로(제1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 개최, 1982)
- 1983~88 · 제37~42차 정기총회 개최(제11~13대 회장 이순흥) / 제30~35회 대한사협전 개최(예총 화랑) / 백오 이해선 선생 작고(1983) / 제6~14회 전국회원촬영대회 / 제14~19회 백오사진상 시상
충주지회 설립(1985) / 고창지회 설립(1988) / 대한사협회보 복간호(제6호, 1988) 발간
고 백오이해선선생 추모비 건립(1988) / 제4~9회 전국대학생사진공모전 (대전지회 주최, 1983~1988)
- 1989~90 · 제43~44차 정기총회 개최(제14대 회장 안준천)
· 제36~37회 대한사협전 개최 / 제15~17회 전국회원촬영대회 / 대한사협회보 제7호 발간
· 제20~21회 백오사진상 시상
· 구미지회 설립(1989) / 대전지회 설립(1990) / 문화부에 대한사진예술가협회를 문화가족으로 등록
제10~11회 전국대학생사진공모전(대전지회 주최 (1989~1990)
- 1991~2 · 제45~46차 정기총회 개최(제15대 회장 김용필)
· 제38~39회 대한사협전 개최 / 제19~20회 전국회원촬영대회 / 제22~23회 백오사진상 시상
제12회 전국대학생사진공모전(대전지회 주최, 1991)
- 1993~4 · 제47~48차 정기총회 개최(제16대 회장 안장현)
· 제40~41회 대한사협전 개최 / ‘한국의품물’ 사진공모전 개최(대한사협, 호영출판사 공동주최, 1993)
· 제24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 제(1993) / 제21회 전국회원촬영대회(1994) /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 유동호, 1994)
· 원주지회 설립(1994) / 이천지회 설립(1994) / 청주지회 설립(1994)
- 1995~6 · 제49~50차 정기총회 개최(제17대 회장 이정훈)
· 제42회 대한사협전 개최 / 창립 50주년 전국회원전 및 작품집 발간(1995) / 제22회 전국회원촬영대회(1995)
· 제2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 : 황규태, 1995) / 제3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 윤주영, 1995)
제4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최민식, 1996) / 고창지회 폐쇄 / 전주지회 설립(1996)
- 1997~8 · 제51~52차 정기총회 개최(제18대 회장 박노택)
· 제44~45회 대한사협전 개최(예총화랑) / 대한사협 회보 제8~9호 발간 / 제23~24회 전국회원촬영대회 개최 / 제5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 강상규, 1998) / 남원지회 설립(1997) / 대구지회 설립(1998) / 김제지회 설립(1998)
- 1999~03 · 제53~57차 정기총회 개최(제19대 회장 김완기)
· 제46~50회 대한사협전 개최 / 대한사협 회보 제10~12호 발간 / 제25~29회 전국회원촬영대회 / 창립55주년기념 대한사협작품집 발간(2000) / 제48회 대한사협전 CD작품집 제작(2001) / 50회 대한사협전국합동전CD작품집 제작(2003)
· 제6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 : 이순흥, 1999) / 제7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 : 송기엽,1999)
제8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 : 최흥만, 2000) / 제9회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 : 김한용,2003)
정읍지회 설립(2001) ※명칭변경(대한민국사진전람회→대한민국사진대전, 2001)
- 2004~09 · 제58~63차 정기총회 개최 (제21~22대 회장 최진연)
· 제51~56회 회원전 개최 / 제30~34 전국회원촬영대회 개최 / 대한사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www.paakorea.com)
· 제1회 대한사협 사진공모전 개최 / 대한사협 회보 제13호 발간 / 창립60주년 전국회원전 작품집 발간(2005)
· 이해선선생 탄신 100년기념 유작전(대구, 충주, 원주, 대전, 전주 순회전) 개최 및 작품집(눈빛) 발간(문화관광부, 조선일보 후원)
남원지회 폐쇄(2006년) / 청주지회 폐쇄(2006년) / 구미지회 폐쇄(2006년) / 전주지회 설립(2006년) 이천지회 폐쇄(2007년)
전주지회 폐쇄(2008년) / 김제지회 폐쇄(2008년) / 한밭지회 설립(2008년) / 원주지회 폐쇄(2008년)

· 제10회 이해선사진문화상(수상자-안장현, 2006) / 제11회 이해선사진문화상 시상(수상자: 조세현, 2009)

2010~12 제64-66차 정기총회 개최(제23대 회장 정건영)

· 제57-59회 회원전 개최 / 제35회 전국촬영회 개(2010)

· 제36-7회 전국촬영회 겸 대전지회 전국 사진인리더 초청세미나 및 촬영회 개최 제12회

· 백오이해선사진문화상 시상(수상자: 안희탁, 2012) / 김제지회 재 설립(2011) / 울산지회 설립(2012)

2013 · 제67차 정기총회 개최(24대 회장 이철집) / 제60회 회원전 개최 및 작품집 발행 / 대한사협 홈페이지 체제 개선

· 제38회 전국촬영회 겸 대전지회 전국 사진인리더 초청 세미나 및 촬영회 개최 / 회원자질향상을 위한 사진학강좌 개설(강사 : 진동선, 8-12월) / 고유번호 등록/ 연구회원제도 부활

2014 · 01. 11 이해선 사진문화상 시상 (수상자 마이클 케나 Michael Kenna)

· 01. 25 제68차 정기총회 개최 (서울 명동 동보성)

· 03. 29 전국 지회장단 회의 개최 (서울 명동 동보성)

· 07. 30 한국사진사 구슬프로젝트: 이해선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한국사진문화연구소발간 최봉림)

· 10. 24 사진 아카데미 연중 실시 (진동선 . 박평중)

· 11. 06 61회 정기회원전 개최 (충무로 갤러리 이룸) 및 사진집 발간

2015 · 01. 31 제69차 정기총회 25대 집행부 출범 (회장 이철집)

· 04. 25 제39회 전국촬영회 및 전국 지회장단회의 개최 (용인 민속촌)

· 01~12 사진아카데미 연중 실시 (이경률 정주하 민병현 10회), 정기 사진 촬영회 연중 실시 (10회)

· 11. 20 제14회 이해선 사진문화상 발표 (수상자 구와바라 시세이 Kuwabara Shisei)

· 12. 09 제70주년 기념 62회 정기회원전 개최 (인사아트 센터) 및 사진집 발간

2016 · 01. 30 제70차 정기총회 개최 (명동 동보성)

· 04. 30 제40회 전국촬영회 및 지회장단회의 개최, 울산대왕암공원 (울산지회 주최)

· 1~ 12 사진아카데미 연중 실시 (이순심. 신민식. 김남진. 이갑철. 백승우. 이기명. 이명호10회)

정기 사진 촬영회 연중 실시 (8회)

· 07, 19 창립 71주년 전국회원전 개최(대전예술가의 집) 대전지회 주관. 대전예총 후원 및 사진집 발간

· 12, 31 김제지회 폐쇄, 정읍지회 폐쇄

2017 · 01, 21 제71차 정기총회 개최 (명동 동보성) 26대 집행부 출범 (회장 김호영)

· 1~ 12 월례회 연중 실시 (회원 작품발표 6회. 곽윤섭기자 강의 2회). 사진전시장 탐방 및 작가와의 대화 (5회) 정기사진 촬영회 연중 실시 (4회)

· 04, 23 제41회 전국촬영회 및 전국 지회장단회의 개최, 경산 반곡지 (대구지회 주최)

· 06, 13 밀양지회 설립

· 07, 15 전국 회원수첩 및 회원증 제작

· 12. 16 창립 72주년 기념 64회 회원전 개최 (서울시 시민청갤러리, 후원 서울문화재단) 및 사진집 발간 제15회 이해선 사진문화상 시상 (수상자 김완기)

2018 · 01, 27 제 72차 정기총회 및 바자회 개최(고려대 자연계 산학관 111호)

· 02~10 월례회 연중 실시, 정기촬영회(5회) 및 사진전시장탐방 연중 실시(3회)

· 10, 07 제42회 전국촬영회 및 지회장단 회의개최(분회주관 : 수원화성)

· 12, 15 창립 73주년기념 65회 회원전개최(서울시 시민청갤러리, 후원 서울문화재단) 및 사진집 발간

2019 · 01, 26 제73차 정기총회 개최(명동 동보성) 27대 집행부 출범 (회장 김호영)

· 3~11 이사회(6회), 월례회(8회), 정기촬영회(7회), 사진전시회탐방(4회)연중실시

· 08, 26 청주지회 설립

· 10, 27 제43회 전국촬영회 및 전국지회장단회의 개최, 울산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울산지회 주최)

· 12, 21 창립74주년 기념 제66회 회원전 개최(서울시청 시민청갤러리) 및 사진집 발간

2020 · 02.01 제74차 정기총회 개최-동보성

2021 · 제75차 정기총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면 총회

2022 · 02. 12 제76차 정기총회 개최(고려대 자연계캠퍼스 산악관 111호) 33대 집행부 출범 (회장 김평기) 제77주년, 68회 회원전 작품집 발간, 75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

· 03~11 이사회(6회), 정기 사진 촬영회(5회), 월례회 사진강좌(6회)

· 03. 25 김호영고문 추대

· 05. 09 협회 홈페이지 반응형(PC+모바일)버전 제작 (주)바른웹 www.paak.kr 로 주소변경

· 07. 26 대한사진예술가협회 NFT 업무협약식(News For Trades)

· 10. 23 전국지회장단회의 9개 지회13명 (대구 달서구 장산로 59 거너실흑태짬)

2023 · 01. 01 제68회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온라인 사진전 (대한사협 홈페이지)

· 01. 28 제77차 정기총회 개최(통로이미지 신관 6층 회의실)

제16회 이해선사진문화상 시상 (수상자 장진필) (통로이미지 신관 6층 회의실) / 감사패 (수상자 김호영 고문) 제68회 대한사협 온라인 회원전 개최

· 03~11 이사회(7회), 정기 사진 촬영회(3회), 월례회 사진강좌(6회) (강사 : 이홍렬, 이은규, 양재문, 김홍희, 김종범, 진동선)

· 05, 30 인천지회 설립

· 10. 14 대한사협 제44회 전국사진촬영회 및 지회장단 회의 98명 참여. 주관 : 부산지회. 장소 :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 11. 18~12. 1 제78주년, 69회 대한사협 회원전 개최 (충무로 갤러리) / 제78주년, 69회 회원전 작품집 발간

· 12. 30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한지봉협동조합 MOU체결

2024 · 01. 27 제78차 정기총회 개최, 34대 집행부 출범(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서울명동), 김평기 회장 연임 / 총주지회 폐쇄

· 10. 26 제45회 전국회원촬영회 및 지회장단 회의, 팔공산 대한수목원 (대구지회 개최)

· 04~11 이사회(6회), 정기 사진 촬영회(4회), 사진강좌(3회) (강사 : 이영옥)

· 12. 3~17 창립79주년 기념 제70회 회원전 개최 '기록을 넘어 예술로' (충무로갤러리) / 제79주년, 70회 회원전 작품집 발간

· 12. 17 대한사진예술가협회, 가톨릭대사진연구소 협력(MOU)협약체결

2025 · 2월 8일 제79차 정기총회 개최 / 감사패 : 대구지회

· 2월~11월 이사회(9회)

· 4월~11월 정기 사진 촬영회(5회)

· 3월~9월 월례회 사진강좌(6회)(강사 : 변성진, 안준, 정경자, 이경희, 정지윤)

· 12. 6~12 창립80주년 기념 제71회 전국 회원전 개최 '빛, 시간을 품다' (인사동 아지트 미술관) 제17회 이해선 사진문화상 시상식(수상자 진동선)

